



편집인 칼럼

# 먹거리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 최운홍/인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오랜만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 나라안의 상황이 힘든 한해를 예고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께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 모두가 신년묵상을 하고 각양각색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과 농약」지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하나로 작물보호제(농약)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농업개혁에 시동을 걸고 40%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농업개혁담당장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세계 식량수급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향상, 바이오연료 수요확대 등으로 2018년에는 곡물가격이 2006년보다 최고 46%나 오를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 국제포럼도 총리에게 제출한 '글로벌화속의 일본농업의 종합전략' 정책제안에서 지키는 농업에서 공격적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 전체 농지의 1/3에 해당하는 150만ha를 식량기지로 정해 농지이용을 자유화하는 특구로 지정하자는 주문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면적의 감소를 막기 위한 규제 완화, 쌀 감산정책 재고, 농촌 지역활성화 등을 긴급 검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식량자급률이 월등히 높은 세계 선진 각국이 미래에 닥쳐 올 먹거리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들을 내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포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우리의 실상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정착은 커녕 오히려 먹거리 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만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약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막연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주는데만 몰입하다 보니 소위 친환경농자재라고 일컬어지는,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름모를 자재들이 작물과 토양에 무차별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사에 쓰여지는 모든 자재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고 안전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경지는 인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야생식물과는 다르고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천연독의 농도가 낮은 것을 육종하여 선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적정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발명된 무기이며 그래서 현대과학이 이뤄낸 '정밀화학의 총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약이 적용되는 작물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악의 사태 (Worst case scenario)를 상정한 안전사용기준은 우리의 식탁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약 8억5천만명이 영양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현실과 인구증가에 수반하여 식량위기로 치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쯤에서 우리의 식량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부정불량농약 추방과 검증안된 친환경농자재의 추방으로 더 이상 농업인과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Y

